

로버트 C. 뉴먼 박사, 공관복음서, 강의 11, 기적 해석

© 2024 Robert Newman 및 Ted Hildebrandt

좋아요, 우리는 공관복음서 과정을 계속합니다. 지금까지 12개 단원 중 8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 예수, 유대인 배경, 주해와 서사 소개, 공관복음서의 저자와 날짜, 우화, 복음서, 문학 작품, 공관복음서 문제,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의 지리.

우리는 4가지를 더 해야 하며, 오늘 아침에는 기적 이야기와 기적 이야기 해석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르에 대해 한두 마디 하고 싶습니다. 기적 이야기라는 장르는 기적을 주요 특징으로 삼는 서사입니다. 이 장르의 일반적인 특징은 서사의 특징 외에도 분명히 서사의 한 유형인데, 사람이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식으로 이것을 말할 수 있도록 문제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의 행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치유나 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일 수 있고, 구경꾼의 반응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일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악마화가 관련된 경우 악마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의 기능은, 제 생각에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예수의 인격이 그의 행동을 통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다른 많은 일을 했지만, 이것들은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의 이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 활동도 나타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많은 기적이 있는데, 아마도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비유와 기적의 수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저는 기적을 치유, 자연기적, 부활로 분류했고,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나레이션된 나병환자,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7장에 나레이션된 백부장의 종,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나레이션된 베드로의 장모,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나레이션된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나레이션된 마비 환자,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나레이션된 출혈병을 앓는 여자, 마태복음 9장에 방금 나레이션된 두 눈먼 사람, 마태복음 9장에 병어리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나레이션된 손이 마른 사람,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에 병어리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나레이션된 가나안 여인의 딸, 마태복음에 귀신 들린 소년이 있습니다. 17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두 눈먼 사람에 관한 이야기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의 귀머거리-병어리,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의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마가복음 8장의 벳새다의 눈먼 사람, 누가복음 13장의 절름발이 여자, 누가복음 14장의 수종병 환자, 누가복음 17장의 열 명의 나병환자, 누가복음 22장에서 대제사장의 종이 귀를 고쳐 주고 요한복음 4장에서 그의 아들을 넣어 주고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의 병든 사람. 마태복음 8장(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치유의 기적, 자연의 기적, 폭풍을 가라앉히는 일, 마태복음 14장(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서 오천 명을 먹이는 일,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 물 위를 걷는 일,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8장에서 사천 명을 먹이는 일, 마태복음 17장에서 물고기 입에 동전을 넣는 일,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 물고기를 잡고 물을 뒤집는 일 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다른 물고기 잡기, 그리고 부활, 예수의 부활은 제외하고,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야이로의 딸이 부활,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의 과부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44절에서 나사로가 부활합니다. 우리의 샘플, 여기서 해석을 위해 살펴볼 기적으로, 마가복음 5장 1~20절에서 발견되는 귀신과 돼지의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내 번역이고, 그들은 예수와 제자들이며, 호수 건너편 게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각 공관복음서에는 다양한 뒷받침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독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게라사 사람들이 더 나은 뒷받침이 되는 듯하며, 그가 배에서 내리자 무덤에서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을 즉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집이 있었고, 사슬로도 더 이상 그를 묶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 쇠사슬은 그 사람에 의해 풀렸고, 족쇄는 끊어졌으며,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때렸고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리고 그는 예수인데, 그에게 “ 네 이름이 뭐냐 ? ” 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 내 이름은 군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기 때문입니다. ”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는 돼지 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는 허락하였다.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갔고, 그 무리는 경사지를 따라 호수로 달려갔는데, 그 수가 약 이천 명이었고, 그들은 바다에서 익사하였다.

그들의 목동들은 도망가서 도시와 시골에서 그 이야기를 전했고, 그 지역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와서, 미친 듯이 옷을 입고 앉아 있는 악령 들린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은 군대를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악령 들린 사람과 돼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예수가 간청한 대로 그 지역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에 오르는 동안, 이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에게 함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푸셨는지 전하십시오.

그는 떠나서 데카폴리스에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얼마나 많이 전파하셨는지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그 구절의 번역입니다. 저는 거기에 숨어 있는 문법적 특징 중 일부를 실제로 다루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그것들을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적의 위치는 1절에 주어진 지역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 다소 복잡합니다. 우리는 게라사인, 게라사인의 지역, 가다라인의 지역, 게르게사인의 지역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주민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마을 이름인 가라사, 가다라, 게르게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그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그 중 두 도시는 큰 데카폴리스 도시인 가다라와 가라사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쿠르시로 알려진 마을의 이름인 듯합니다. 갈릴리는 모서리가 정확히 없지만 바다의 북동쪽 끝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적 지도를 보면, 예를 들어 UBS 그리스어 신약성경의 앞부분에 있는 지도를 보면 가라사는 호수에서 남동쪽으로 무려 3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가다라는 호수에서 남동쪽으로 약 5마일 떨어진 깊은 협곡을 건너고, 게르게사는 호수 근처, 동쪽 중앙 북쪽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방금 전에 말했듯이 오늘날의 쿠르시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라사와 가다라는 말했듯이 큰 마을이었고, 데카폴리스의 열 개 도시 중 두 곳이었습니다. 게르게사는 아마도 작았을 것입니다.

위치는 게르게사가 그 장소일 가능성이 더 높지만, 데카폴리스 도시가 호수에서 어업과 정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북음서 모두에서 게르게사 지역이라고 언급하고, 가라사 지역이라고 언급하지 않았거나, 그런 종류의 언급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지금은 호수 동쪽의 여러 곳에 고대 부두 유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호수는 비정상적으로 낮았고, 이 물질 중 일부가 나타났습니다. 지형과 관련하여, Gergesa 근처와 호수의 남동쪽 끝 모두 해안 가까이로 가파른 경사가 있는데, Garasa 또는 Gadara의 어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위치 모두 가능합니다.

분명히 봉우리가 아래로 내려갈 만큼 상당히 가파른 경사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리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후보는 두 가지입니다.

전통적인 것은 호수의 북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악마. 악마에 대한 믿음은 일반적으로 서양 세속 문화에서는 거부되지만 전 세계의 전통 문화에서는 매우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존재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만, 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표준적인 생각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타락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물을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마도 우리 세계만큼 복잡할 것이라는 다양한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세라핌과 케루빔을 천사로 묶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마 그 지점에서 그만둘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존재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그들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는 귀신 들림에 대한 명확한 예가 없지만, 사울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열왕기 상 22장에서 아합의 선지자들은 속이는 영에 의해 미혹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사건은 악마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악마들은 신명기 32장 17절과 시편 106편 37절에서 거짓 송배와 관련하여 언급됩니다. 반면에 악마에 사로잡히는 것은 복음서에서 자주 언급되고 사도행전에서는 한두 번 언급됩니다.

서사 속에 악마가 등장하면 누가 행동하는지 항상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악마화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자발적인 행동인가요, 아니면 그의 활동을 통제하는 악마인가요? 우리 구절에서 악마화된 사람인가요, 아니면 악마인가요? 돼지인가요, 아니면 악마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이 구절의 기적 이야기로서의 특징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서술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실제로 20절 분량의 구절에 걸쳐 상당히 광범위한 설명으로 소개됩니다. 그의 질병과 그것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움 요청. 이 특정한 사례에서, 그 남자가 예수를 향해 처음 움직인 것이 악마의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그의 이니셔티브의 결과가 아니라면, 어떤 도움도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머릿속에서 악마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보세요, 예수나 그런 종류의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마는 지금 아니면 절대 없다고 말하고 예수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마가 그냥, 보세요, 여기 무리가 해안으로 오고 있다고 말하는 다른 현상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그들을 잡아서 거기로 달려가서 그들이 매우 가까이 다가가기 전까지는 그들 중 하나가 예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특정 계정에 도움 요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의 행동.

글쎄요, 예수는 악마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합니다. 그 결과, 그 남자는 구출됩니다. 돼지들은 익사합니다.

우리는 악마들의 반응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없애기 위해 돼지들을 물속으로 몰아넣나요? 예수가 악마들을 없애기 위해 돼지들을 물속으로 몰아넣나요? 아니면 돼지들이 당황해서 자살하나요? 이것은 당신이 여기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악마나 돼지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복잡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구경꾼들의 반응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돼지 치는 사람들이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먼저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첫인상이 그들이 책임감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관중들은 두려워하며 예수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물론 인간 역사 전반에 걸쳐 흔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복음서 기록, 성경 기록, 그리고 외부 자료에서 그것을 많이 봅니다. 이전에 귀신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기적 기록으로서의 구절의 특징 중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서사이기도 하지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서사의 표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나 캐릭터, 사건과 행동, 장면, 줄거리 등등. 글쎄요,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입니다.

그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의 의미에서 치유될 때까지 그의 행동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귀신들은 예수와 대화하고 집단으로 행동합니다. 돼지 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데 있어서 서술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을로 향합니다. 제자들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마도 몇 분 후 이곳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사건을 서술하는 주요 인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룹으로 행동합니다.

사건과 행동.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호수 반대편에 도착합니다. 가버나움과 비교했을 때 다른 쪽.

그래서, 호수의 꼭대기를 가로질러 또는 호수 전체를 따라, 두 장소 중 어느 곳이 맞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악마가 예수를 만나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내레이터는 그에게 배경 상황을 스케치할 측면을 제공합니다.

캐릭터를 설명에 소개하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또는 그런 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당신이 좋아한다면 다소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꽤 깁니다. 예수는 악마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흥미로운 현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저항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신에게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두고 그를 향해 그들을 내쫓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누가의 기록은 그들을 심연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군단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군단은 로마 군대의 표준적인 군대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병력은 약 6,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발언은 우리가 이 녀석 안에 수천 마리의 악마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그들은 돼지에게 들어가기 위해 허락을 구합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돼지들은 호수로 달려들어 익사한다. 돼지 목동들은 마을로 향하고 군중과 함께 돌아온다. 이때쯤 악마는 이제 옷을 입고 제정신이다.

군중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예수에게 떠나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는 떠나지만, 전직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 다음, 귀신 들린 사람이 데카폴리스 전역에서 그 이야기를 전한다고 합니다.

장면은 하나뿐입니다. 모든 장면이 호숫가에서 펼쳐지지만, 악마가 떠나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려주는 마지막 대사는 제외합니다. 줄거리.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한 남자를 악마 무리로부터 구해내시고, 그 사건들은 인간 본성, 악마적 본성, 예수의 본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글쎄요, 저는 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기적에서 어떤 종류의 신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예수에 대한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 이 이야기가 예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입니다. 글쎄요, 이 이야기는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이 특정 정보의 출처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악마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독립적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이 그들의 목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말하라고 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들을 소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거짓말을 어떤 진실과 섞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형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구절을 해석할 때, 우리는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따라 해석하려고 합니다.

결국, 제가 앞서 우리의 주해 소개에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주 잘 알 때까지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없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읽었다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성육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힌두교도나 불교도가 그들이 본 유일한 구절이라면 그렇게 반응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는 수천 마리의 악마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큰 승무원조차도 궁극적으로 그에게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탄에게 속박된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된 데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연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구절에서 보는 중요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그가 떠나기를 원하고, 그는 떠납니다. 특히 데카폴리스에 대한 이 발언과 관련하여, 아마도 4,000명을 먹인 후의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가 아마도 전직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몇 달 동안 일을 하게 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다시 돌아올 때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예수님에 대한 구절에서 본 몇 가지 사항입니다. 악마에 관해서, 성경은 매우 분명하고 이 구절은 그들이 존재하고 위험하며,

광기의 원시적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힙니다. 제 마음에는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광기가 악마의 현대적 변장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광기가 악마의 변장일 뿐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이 악마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으며, 아마도 무언가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 또는 그런 종류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악마들은 사람이나 동물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동물도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에 한 마리만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이 악마들이 적을 때는 돼지를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수가 있는데, 돼지는 약 2,000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악마는 신에게 복종해요. 우리는 조로아스터교도들이 본 것과 같은 우주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싸우는 두 명의 신이 있는 비슷한 힘을 가진 우주에 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반역을 하든 안 하든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통찰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귀신 들린 자와 군중,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습득하고 종종 제자들로부터도 습득합니다.

그런 사건에서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관심사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일어난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는 그것에 대해 정말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의 가족은 더 이상 그 동네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중의 주된 관심사는 돼지에 대한 것 같고, 아마도 예수가 너무 오래 머물면 다른 재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술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많은 세부 사항을 알려주는 구원 사역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짜이고 정말 정확한 정보인지는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특별한 신학적 훈련 없이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전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나 그에 비슷한 것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곁에 두는 대신, 그가 나가서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나 일요 학교 수업이나 다른 것을 가르칠 때, 이 특정 구절을 어떻게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글쎄요, 여기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사탄의 힘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도록 돕는 것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붉은 레오타드를 입고 갈퀴를 든 사람에 대한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며, 최근 세대에서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권세와 권력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다양한 정치 체제와 기관이라는 제도적 억압에 대한 은유도 아닙니다.

글쎄요, 그게 사탄이 일하는 한 가지 방식이에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그가 일하는 유일한 방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탄은 그런 종류의 단순한 제도적 활동으로 축소될 수 없어요.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사탄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보호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로 도망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이름 붙이고 주장하는 종류의 것은 우리가 충분한 믿음이나 그런 종류의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그것을 할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상황에 빠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며, 우리를 구해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가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천사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를 잡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런 다음 그분이 우리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면, 우리나라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구원을 위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탄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미루고 대신 우리만의 길을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예수를 주변에 두는 것보다, 우리는 그가 떠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실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사용하고, 그런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쌓아 올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기적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적의 기록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 죄를 심판하고, 사람들을 사탄과 그들의 죄악에서 구출하고, 원한다면 사람들을 온전함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좋아요, 글썄요, 기적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아주 빠른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달려가서 다음 노트를 가져오겠습니다. 그것은 시놉틱 복음의 성경 신학입니다.